

해남교육청, 전남농산어촌 유학마을 인증패 게시식 개최

전학 온 유학생 10명과 간담회 등 격려품 전달 특산품 '한 눈에 반한 쌀' 나누며 격려 시간 가져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은 10월 5일(화) 해남으로 유학 온 다섯 학생을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하여준 전남농산어촌 유학마을(무선동한옥마을)에서 '전남농산어촌 유학마을 인증패 게시식'을 가졌다. 또한 계곡초, 현산초, 삼산초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꽃다발과 격려품을 전달하며 유학생 환영 간담회를 실시 하였다. 2021학년도 2학기에 전남농산어

촌유학으로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 해남에 전학 온 유학생은 총 10명이다. 계곡초 1가구(2명), 현산초 2가구(3명), 삼산초 4가구(5명)이 전학와 벌써 1달이 지났는데 가정과 학교에 잘 적응하여 해남 살이를 하고 있다. 한옥, 장독대, 텃밭가꾸기, 황금들판들판, 두륜산, 잔디운동장과 여유 있는 학교, 다정다감한 친구들, 항상 웃는 모습으로 맞이해 주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

던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생활로 학생들의 해남살이를 행복하게 하고 있다. 이날 유학생에게는 환영하는 꽃다발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및 해남의 대표 특산품 '한 눈에 반한 쌀'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월 전남농산어촌유학마을 공모에서 선정된 무선동한옥마을(유학마을) 윤문희 대표는 "전남도교육청, 해남교육지원청, 해남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 해남에서 유학생 및 학부모들이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친화적인 유학 생활로 농촌 유학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으며, 조용한

마을이 아이들의 웃음 소리로 가득 채워져 유학마을 주민들도 더불어 활기찬 생활로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학마을에서 만난 유학생 학부모는 "도시에서는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허라고, 또 괜찮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침에 밥 먹고 산책하러 나가고 학교 갔다가 저녁에는 노을을 보며 산책하고, 이런 삶이 진짜 될 수 있을지 몰랐어요."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조영천 교육장은 "해남 무선동한옥마을(유학마을)이 전남농산어촌 유학마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것이며, 유학생들이 즐



거운 유학생 및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질,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장석웅 전남교육감, 전남체육고·함평골프고 방문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5일 체육계열 특수목적고인 전남체육고와 함평골프고를 방문해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강조했다.

전남체육고는 10월8일(금)부터 14일(목)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14개 종목 82명이 출전해 금 15, 은 10, 동 17개 획득을 목표로 그간 갖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이번 전국체전은 코로나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

19 감염병 확산으로 대학부와 일반부는 취소됐고 고등부 경기만 열린다. 장 교육감은 전남체고에서 "이번 대회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선수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방역과 감염예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자전거 종목 종합우승(금2,은2,동1)을 차지한 전남체육중 최연경(3), 송유진(3), 강소은(2), 박영서(2), 황선미(2) 학생에게 축하와 격려금도 전달했다. 최이슬기자

광양 백운초, 찾아오는 야영수련활동 실시



광양백운초등학교는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5학년을 대상으로 찾아오는 야영수련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야영수련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급 단위로 실시하였으며 교실, 운동장, 체육관, 음악실 등 여러 장소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하였

5학년 대상...학급단위

다. 체험 프로그램은 요리 연구가 체험, 특수 분장사 체험, 스포츠 클라이밍, 마술 등의 진로 체험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요리 연구가 체험에서 학생들은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한국의 전통음식 중 하나인 궁중 떡볶이를 만들어 보았다. 학생들은 요리를 직접 만들고 맛도 보며 활동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5학년 한 학생은 "음식을 연구하고

보급시키는 요리 연구가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었다. 나중에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을 알리는 요리 연구가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규환 교장은 "백운 학생들이 이번 야영수련활동을 통해 협동하는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여 바른 인성과 자신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양백운초등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진로교육에 앞장 서고 있다. 광양·심종섭기자

무안교육청, 해제에서 삼향까지 '학생 무안사랑교육 체험'

초등 3학년 102명 대상

무안교육지원청은 10월 5일 무안초, 남약초등학교 3학년 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2학기 무안사랑교육 체험활동을 추진하였다.

무안사랑교육은 무안의 역사·인물·문화·예술 등 우리 고장 무안을 이해하는 탐방 체험활동으로 무안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애郷심을 함양하는 프

로그램이다. 무안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 무안사랑교육을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며, 문화해설사와 함께 황토갯벌랜드, 초의선사 탄생지, 무안오승우미술관 등 무안지역을 탐방하는 학생들의 무안사랑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또 무안군과 적극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체험활동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주중앙도서관, 재개관 기념식 개최

올해로 30년째 맞아

광주중앙도서관이 재구조화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고 6일 오전 재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1991년 개관한 광주중앙도서관은 올해로 30년째를 맞았다. 시간이 흐르며 성능 저하 등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및 효율적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노후시설 개선 및 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약 60억 원을 리모델링 사업에 투입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다.

광주중앙도서관은 층별·공간별



로 연령과 특성에 맞는 이용자 중심 맞춤형 시설을 갖추게 됐다. 방과 후 및 주말시간을 이용해 어린이·청소년의 특기적성과 진로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체험·놀이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